

졸업·입학시즌 생화 수요 '시들'

유가 폭등에 가격 올라 매출 20% 하락 중 조화 인기...사탕부케 주문 5배 늘어

밸런타인데이, 졸업·입학 등으로 2월 들어 꽃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생화 대신 값싼 중국산 조화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잦은 한파와 유가 급등으로 화훼농가가 꽃 출하량을 줄이면서 생화 값이 올랐고 포장지 등 각종 재료비까지 치솟는 상황에 값싼 중국산 조화가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정충화원 정은숙 대표는 "안개꽃, 장미꽃 등을 넣어 한다발을 만들 경우 3만~5만원대까지 올라간다"면서 "생화는 비싼 돈을 주고 사도 풍성한 느낌이 안드는데 중국산 조화는 값이 싸고 풍성하게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조화를 찾는 손님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화는 한 다발에 3만~5만원 정도로 비싼 반면 중국산 조화는 한 묶음에 1만~2만원 수준으로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값싼 조화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자 졸업식 등 행사장 주변에서 꽃을 파는 상인들도 생화와 함께 '사탕꽃' 등 조화도 함께 취급하고 있는 실정

이다.

지역에서 꽃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졸업·입학 시즌이라 생화를 찾는 사람들이 평소보다는 늘기는 했지만 예년에 비해 생화 매출은 15~20% 가량 줄었다"며 "졸업식 꽃 판매를 나가도 조화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 생화만 취급해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통업체에서도 조화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다.

광주신세계 이마트에서도 최근 한 달간 조화 매출이 5% 가량 늘었으며 인터넷 쇼핑을 인터파크에서는 같은 기간 사탕과 조화를 함께 묶어 꽃다발로 만든 '사탕 부케' 주문 건수가 약 5배로 늘어났고 비누꽃 등 조화 주문 건수도 50% 가까이 증가했다.

임정호 한국화원협회 광주지회장은 "각종 원가 상승으로 생화 값이 오르면서 수요는 해마다 줄고 있는데 중국산 조화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화훼업계가 많이 위축되고 있다"며 "꽃 소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



밸런타인데이와 졸업시즌을 맞아 13일 광주신세계 이마트 지하 1층 지플라워 매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조화들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수수료 법안 강행하면 헌법소원"

카드업계, 법 개정안 저지 총력전

신용카드업계가 카드 수수료를 과 관련된 법 개정안을 저지하고자 헌법 소원을 포함한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13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여신 금융협회, 카드사 및 해당 노동조합은 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단계별 투쟁 방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실행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가 강경 대응하기로 한 것은 개정안의 위헌 개연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법무법인 화우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

율을 금융위가 일률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위헌 원칙에 어긋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협회는 이를 근거로 당분간 국회 법사위 의원들에게 위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성과가 없으면 헌법 소원 등 다른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사들도 별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하나SK카드

등 카드사 최고경영자들은 10일 오후 긴급 회동해 이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크다는 판단 아래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KB국민카드는 12일 법무법인 김앤장이 법률 검토를 의뢰해 "수수료를 특정해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금지하는 건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답변을 얻었다. 나머지 카드사들도 자문 변호사나 로펌에 위법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카드사들이 헌법 소원을 내는 등 동태가 장기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연합뉴스

한은 中企 1조원 특별지원

한국은행은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늘리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연계 특별지원 한도'를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중기 신용대출 특별지원은 4월2일부터 시행되며 금융기관별로 중기 신용대출 순증액에 비례해 금액을 배정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담보·보증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규모가 1조원 늘어난다.

한은은 특별지원 신설 배경에 대해선 "2011년 10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신용대출 비중이 대기업은 71.2%이나 중소기업은 46.8%에 불과하다"면서 "신용대출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5600억 '꿀꺽'

감사원, 금융감독실태 감사

증권회사들이 투자자 재산인 투자자·펀드·예탁금 운용수익 5600억원의 원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작년 4~5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증권회사 48곳은 2009~2010년 증권금융에서 투자자 예탁금 운용수익으로 8317억원을 받아 투자자에게는 이중 34%에 불과한 2848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469억원이 회사 이익으로 귀속했다. 투자자 예탁금은 주식 등을 매입하려

고 증권계좌에 예치한 자금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운용수의 기여율이 같아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타당하지만 금융투자협회는 내부 규정으로 증권사가 자체 기준에 맞춰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증권사별로 이용료 지급률이 달라 A증권사는 운용수의 1092억원 중 764억원을 투자자에게 준 반면, B증권사는 1078억원 중 249억원만 지급했다. C증권사는 운용수의 513억원의 11%(59억원)만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로 줬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금감원에 주의를 요구했다. 펀드판매회사 74곳이 펀드 예탁금 운용수의 229억원을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회

사 이익으로 쫓긴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의 부실한 감독 사례는 곳곳에서 드러났다.

금융위가 2010년 증권사의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 납부 수수료를 20% 인하하도록 했는데도 정작 국내 증권사 42곳의 2010년 평균 위탁수수료를 하락률은 전년 대비 0.9%에 불과했고 4곳은 오히려 상승했지만 금융위는 이를 방치했다. 기업의 신속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소액공모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도 이 역시 속수무책이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과도한 협회 부담금 납부와 방만한 운영, 자본형 랩어카운트 상품과 자본형 특정금전신탁상품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부실 감독도 도마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내사랑을 받아줘"

13일 (주)광주신세계 지하1층 달로와요 매장에서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딸기와 초콜릿이 조화된 딸기 초콜릿을 선보여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딸기 초콜릿에 고객이 원하는 글귀를 새겨주는 서비스도 진행한다. 9000원~1만4500원. (광주신세계 제공)

우리집 전기 내가 만들어 쓴다!

이제 전기요금 걱정은 평생 끝!! 우리집 전기계량기가 거꾸로??
겨울엔 난방! 여름엔 에어컨! 이젠 주방도 전기시대!

신속 계획중인 고객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주택용 태양광 안전 연계형 계통 설비 (3kw이하~10kw이하) 설치계통합니다.

설치전문업체가 국내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효율의 태양광을 설치할 절호의 기회를 드립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 설치 후 효과 (월 350kwh 생산 기준)	기존청구요금(사용전력량 : kwh)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요금
5만원(약 321kwh)일때	약 1,130원	48,870원	
10만원(약 454kwh)일때	약 8,020원	92,270원	
15만원(약 531kwh)일때	약 18,380원	131,810원	
20만원(약 597kwh)일때	약 31,010원	169,510원	
25만원(약 662kwh)일때	약 47,440원	202,640원	
30만원(약 728kwh)일때	약 66,850원	233,150원	

태양광 주택 시스템 구성도

태양광 시스템은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모듈과 구조물, 전력을 변환시키는 장치인 인버터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전기는 자기용으로 우선 사용되어 남은 전력은 한국전력공사로 역전송 하여 역전송된 만큼 전기로 사용량이 차감되어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 설치 후 효과

발전량 시작하면 인버터가 자동으로 역전송을 차단합니다.

어떠한 궁금점이라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1588-4208 010-3624-5399 010-4764-0531

NAVER 강남산업 **강남산업**

(주)강남산업
KANGNAM INDUSTRY

www.oknwood.com

판백나무가구 전시 판매장

판백나무가구 전시 판매장 2층

판백나무 전시장 4층

친환경제품

- 한국 판백, 일본 히노키, 중국 향목 무아 일체
- 황토보드, 게르마늄 분말, 운기석 토말
- 친환경 흡음재, 친환경 단열재, 불연칼라 내장 마감재, 목모보드

각종 내장재

- 소송각재, 미송각재, 합판, 스티로폼의 내장재 일체
- 방부목, 특수목, 남미산천연테크재, 독일산 아이돌(오일스테인)

판백 입체블럭

반신목 폼질방 소파 및 침대

2012년 신제품 특허제품

협력사

- 우던페이퍼몰딩, 필름합판, 문짝, 문틀, 태원목재 호남총판
- KCC 강화마루, 한솔강화마루, 동화마루 대리점, (주)장기방
- 라파즈, KCC 석고보드 총판
- 레포피아 합성목재 호남총판

목조주택&아파트 리모델링 전문업체

히트상품 : 판백입체블럭, 판백보드마감재

11월 24일~27일까지 열렸던 KBC건축박람회에 판백종합목재건설상사(주)를 찾아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판백나무 인테리어 상담 및 판백주문제작 전국 전남북·시·군·대리점 모집 판백 및 창업문의 010-3609-4321

판백나무가구 전문업체 **판백종합목재건설상사(주)**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4-26
tel. 062) 652-2935 - 2223 fax. 062) 651-5141